성찬 전례

미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찬 전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물준비 → 봉헌 → 예물준비기도 → 감사송 → 거룩하시도다 → 성령청원 → 성찬제정과 축성문 → 기념과 봉헌 → 전구 → 마침 영광송 → 영성체 예식

이 가운데 사제가 예물봉헌과 예물준비기도 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며 시작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송'입니다. '감사송'부터 '마침 영광송'까지 나오는 기도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사제는 감사송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구원의 업적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감사송에는 '감사함이 옳은 일이며 마땅하다'는 표현이 사용되며, "거룩하시도다"라는 환호로 끝납니다.

환호: 사제의 감사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자들은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더 환호의 성격이 강한 이유는 주례사제와 참석한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일치하여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청원: 성령을 통하여 사람이 바친 예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되도록 간구하고, 또한 영성체 때 이를 받아 모시는 이들에게 구원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성찬 제정과 축성문: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봉헌하셨고, 사도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셨으며, 이와 똑같은 신비를 영구히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제는 제정문과 축성문을 읽으며 빵과 포도주를 축성합니다.

기념: 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을 이행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기념제를 지냅니다.

봉헌: 교회는 신자들이 제물 봉헌뿐 아니라 자신도 바치기를(봉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이웃과 더욱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교황과 지역 주교와의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구: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라고 기도하며 교회와 교회의 모든 구성원, 곧 모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침 영광송: 사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하며 감사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이를 마침 영광송이라 합니다. 단순히 '마침기도'라 하지 않고, '마침 영광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느님께 대한 '찬양'의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신자들은 "아멘"하고 환호로 응답합니다 (아멘을 노래로 할 경우 환호의 성격을 더욱 잘 살리게 됩니다).